이미 주어져 있는 것 처리법

(에스더 9:17~32)

17. 아달월 십삼일에 그 일을 행하였고 십사일에 쉬며 그 날에 잔치를 베풀어 즐겼고
18. 수산에 사는 유다인들은 십삼일과 십사일에 모였고 십오일에 쉬며 이 날에 잔치를 베풀어 즐긴지라
19. 그러므로 시골의 유다인 곧 성이 없는 고을고을에 사는 자들이 아달월 십사일을 명절로 삼아 잔치를 베풀고 즐기며 서로 예물을 주더라
20. 모르드개가 이 일을 기록하고 아하수에로 왕의 각 지방에 있는 모든 유다인에게 원근을 막론하고 글을 보내어 이르기를
21. 한 규례를 세워 해마다 아달월 십사일과 십오일을 지키라
22. 이 달 이 날에 유다인들이 대적에게서 벗어나서 평안함을 얻어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애통이 변하여 길한 날이 되었으니 이 두 날을 지켜 잔치를 베풀고 즐기며 서로 예물을 주며 가난한 자를 구제하라 하매

오늘 말씀 중심으로 <이미 주어져 있는 것 처리법>이라는 제목의 하나님 말씀 증거 합니다.

'이미 주어져 있는 것 처리법'

유니티 교파를 창설한 찰스 필모의 글 중에서 "무한공급의 열쇠"라는 제목의 글이 있습니다. 풍요로움이 우리에게 무한하게 주어질 수 있다는 취지의 내용인데 그 비결을 아주 설득력 있고 명확하게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이미 주어져있는 것에 진심으로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내가 오늘 100만원이 필요한데 현재 30만원 밖에 없습니다. 그럴 때에 없는 70만원을 어떻게 구할 것인가에 모든 신경이 집중되는데 이분의 이야기를 따르면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미 주어져있는 30만원에 진심을 담은 감사를 하면, 이 감사를 통해서 무한한 공급의 문이 열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없는 부분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이미 있는 것에 대한 감사가 풍요로움을 가져다주는 열쇠가 된다고 하면서 예수님의 오병이어의 기적을 예로 들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다섯 개의 빵을 오천 명에게 나눠주실 수 있었던 가장 근본적인 열쇠는 먼저 예수님이 기도를 하시면서 수중에 있는 오병이어에 감사하셨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무한공급을 받기 위한 열쇠는 자신의 손 안에 있는 것을 알아야 한다고 역설하였습

니다. 지금 주어져 있는 것에 감사하지 않고, 없는 것을 얻으려고만 한다면 절대로 풍요로움을 무한히 공급 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주어져 있는 신의 은혜를 찾아내서 감사해야만 한다는 것이며, 신의 은혜는 모든 곳에 퍼져있으며 모든 범위에 걸쳐 완벽하다는 것을 기도를 통하여 권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강한 설득력이 있고 무척 공감이 가는 이야기이지만 결론부터 말하자면 우리는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관하는 삶을 살아서는 안 됩니다. 지금 주어져있는 신의 은혜를 찾아내서 감사하는 정도로는 제대로 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습니다. 신이 주신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을 찾아야만 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하나님은 동일한 존재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가려내지 못하면 감사하다가 망하게 됩니다.

앞서 주어져 있는 것들에 감사하는 것이 무한공급의 열쇠라고 했는데 그에 대해 질문을 해보기로 합니다. 선민의 역사는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삶의 모습이란 어떠했을까요? 본토 친척 아비 집은 주어져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에 대해 감사할 겨를도 없이 그것들을 버리고 떠나야만 했습니다. 왕들이 볼 때마다 탐을 내는 아름다운 미모의 아내 사라에 대해서도 감사할 겨를도 없이 마음으로 포기해야만 했습니다. 또한 백세에 얻은 이삭이 번듯한 청년이 되었으니 감사의 감사를 해도 부족할 판인데, 그 감사의 근원적 존재인 이삭을 번제단에 바칠 것을 요구받았습니다.

이것이 선민의 모습입니다. 주어져 있는 것들에 감사할 겨를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18절에서 “항상 기뻐하라 / 쉬지 말고 기도하라 /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고 말할 때에 ‘범사에 감사하라’는 말을 가장 나중에 이야기하였습니다.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한 후에야 범사에 감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항상 기뻐하라’는 것은 주어져 있는 것들로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기뻐하는 것입니다.

그 기뻐할 대상인 하나님은 돈이나 명예 같은 비인격적 존재가 아닌 인격적 존재이시기 때문에 항상 기뻐하기 위해서는 쉬지 말고 기도함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인격적인 존재이신 하나님으로 기뻐하고 기도로 쉬지 않고 대화하는 가운데 이 세상에서 내 눈 앞에 펼쳐지는 일들에 대해서는 드디어 감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두 순서를 제외하고 감사가 먼저 나온다면 감사하면서 망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에스더와 모르드개가 앞장서서 민족말살의 위기를 민족승리로 바꾼 12월 13일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수산성에서는 13일과 14일에 대적을 물리쳤고 15일에 잔치를 했고, 페르시아 전역에서도 13일에 대적을 물리침으로서 14일에 잔치를 벌이게 되었습니다. 이 14일과 15일을 민족승리의 날을 기념하는 부림절로 제정하여 지키도록 하는데 이 부림절이 오늘날 우리에게 전하고자 하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부림(Purim)이라는 말은 고대 페르시아어인 '푸르'라는 단어에서 기원되었는데 '제비, 추첨'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본문에서는 하만이 유다인들을 죽이기 위한 날짜를 정할 때에 제비를 뽑았음에 부림이라는 말이 사용되었습니다. 바로 이 제비뽑은 날이 선민의 말살위기의 날이었다가, 이제 선민들의 승리의 날로 바뀌게 된 것입니다. 바로 제비뽑은 이 날은 선민이 '말살되느냐 승리하느냐'라는 기로에 선 날이었습니다. 이 기로에 선 날에서 선민은 승리하게 된 것입니다.

여기에 깊은 뜻이 있습니다. '제비를 뽑는다.'라는 것은 내 의도와는 무관하게 결과가 주어지는 것입니다. 내가 의도한 바가 아니지만 내게 주어졌다는 것에 의미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좀 더 들어가면 표면적으로는 볼 수 없는 특별한 의미가 드러납니다. 선민 됨의 말살 위기는 언제나 선민 개인에게 주어진 것들로 인해서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12월 13일은 제비뽑아 정한 날입니다. 이 날은 선민의 말살과 승리의 기로에 선 순간이었습니다. 이 점을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오시기까지 모든 선민에게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제비 뽑아 추첨한 것처럼 내 의도와는 상관없이 주어진 것들로 인해서 부림절이 날마다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선민 됨이 말살 될 것이냐, 온전히 성취 될 것이냐가 바로 주어진 것들로 인해서 기로에 선 의미가 됩니다. 이것을 좀 더 확대해서 생각해봅니다. 인간의 삶은 나라 민족 가정 부모형제자매 나의 성격과 같은 생래적인 것들이 주어져서 이루어집니다. 철학자 하이데거는 "인생은 던져진 것이다"라고 말했습니다. 내가 결정하지 않은 상황들에 던져져서 삶을 살게 된다는 뜻입니다.

인간의 삶에는 언제나 낮과 밤의 주기가 반복되며 진행이 됩니다. 밤에는 자고 아침이 되면 깨어납니다. 어제까지 내 의도로 인해서 다가오게 된 것들도 아침이 되어 잠에서 깨어나면 주어져 있는 것으로서 내게 다가오게 됩니다. 이 주어져있는 것들에 대한 관계에서 선민 됨이 온전히 성취되거나 말살되는 문제가 제기 될 수 있기 때문에, 선민에게 있어서는 부림절이 날마다 요구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7장에서 스데반 집사님의 설교 속에 나타난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보면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 이르시되 네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네게 보일 땅으로 가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갈대아 사람의 땅을 떠나 하란에 거하다가 그의 아버지가 죽으매 하나님이 그를 거기서 너희 지금 사는 이 땅으로 옮기셨느니라"라고 했습니다.

'영광의 하나님이 보였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마음에서 1등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선민의 모습인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1등을 하셨다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일까요?

사람의 마음은 비어있는 상태로 창조되었다고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비어있는 마음의 공백은 흡입력이 작용합니다. 이 흡입력은 언제나 내게 주어져 있는 것들을 향해서 흡입하려

는 욕망으로 나타납니다. 갖고 싶고, 가고 싶고, 하고 싶은 이 모든 표현들은 흡입력이 내 안에서 작동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인간의 마음은 공백상태로는 견디지 못하기 때문에 만족과 기쁨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주어져 있는 것들 중에서 만족과 기쁨을 흡입하려고 하는데, 선민에게는 하나님이라는 대상이 추가 됩니다. 선민은 하나님께서 주셔서 주어진 많은 것들을 끌어안고 하루의 삶이 시작될 때에 그 많은 것들 중에서 당신을 선택하라고 선택하신 자들입니다. 즉 선민이 아닌 자들은 마음의 흡입력으로 끌어들이려는 대상에 하나님이 없는 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민으로 선택하신 이유는 마음의 흡입력의 대상으로 당신을 선택하라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하나님이 1등 하시는 영광이라는 개념이 나온 것입니다.

오늘 내게 100만원이 필요한데 수중에는 10만원만 있습니다. 그러면 있는 10만원에 대해서 감사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없는 90만원을 어떻게 얻을까에 대해서 집중하라는 것도 아닙니다. 선민은 내게 필요한 100만원으로서 주어질 만족보다도 하나님으로 인해 주어지는 기쁨과 만족을 우선시하는 자들입니다. 마음을 채울 우선 대상으로서 하나님을 선택하는 자들입니다. 선민이 하나님을 1등으로 선택하지 않는다면 선민 됨은 말살 되어 버리고 맙니다.
잠에서 깨어나면 이미 주어져 있는 상황과 관계들에 사이에 하나님이 계셔서 우리에게 선택할 것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1등으로 선택하여 영광을 돌릴 수 없다면 우리의 선민 됨은 말살되어 버리고 말 것입니다. 주어져 있는 것에서 하나님을 선택하지 못한다면 선민 됨은 말살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날마다 부림절입니다.
이 부림절에서 날마다 승리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먼저 보고 주어져있는 모든 상황에 대해서 마음의 등을 돌려버려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선택하기 위해서입니다. 이 땅에서 내게 주어진 것들에 대해 마음이 죽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선택할 때에 선민 됨은 온전해지고 선민의 승리가 주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내 마음의 공백을 메우기 위한 첫 번째 대상으로 선택함으로서 선민 됨이 온전하게 이루어지면 하루의 일과는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실 것입니다. 예를 들어 오늘 100만원이 필요하지만 10만원밖에 없습니다. 그럴 때에 90만원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뜻이 작용할 것입니다. 또는 100만원은 고사하고 있었던 10만원도 없어지도록 삶이 진행되었다면 100만원이 필요하다고 여겼던 내 생각이 잘못 되었기 때문입니다. 100만원을 채우기 위해 90만원을 모을 것이 아니라 있던 10만원까지 쓰게 만드심으로서, 100만원으로 얻을 수 있는 만족과 기쁨과는 비교가 되지 않는 하나님의 계획이 실천되어 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선민의 삶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오늘 하루 무엇을 하겠다고 계획을 세우고 마음을 다잡는 것이

아닙니다. 반대로 어렵게 느껴지는 일들에 대해 부담을 느낄 필요도 없습니다. 혹은 오늘도 힘차게 살겠다며 희망을 가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첫 번째로 선택하는 것입니다. 날마다 부림절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부림은 제비뽑기이고 추첨입니다. 이는 곧 나의 의도와는 상관없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설령 내 의도로 인해 주어진 것들일지라도 하룻밤이 지나고 나면 이미 주어진 것으로서 다가옵니다. 이 주어진 것들에 대한 관계로 인해 선민 됨이 살아나느냐 혹은 말살되느냐가 결정되게 됩니다.

우리는 선민역사의 시작인 아브라함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주신 이유는 이삭을 보며 감사하라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삭은 하나님을 우선시하고 사랑하는 아브라함 마음의 기준점으로 제공된 것이었습니다. 이 세상에 주어진 것들 중에서 가장 귀한 것이 하나님 사랑의 기준이 됩니다. 그것보다도 하나님을 더 먼저 더 많이 사랑하는 것입니다.

십자가 생활화는 부림절을 날마다 맞이하면서 제1계명을 지켜나가는 것입니다. 내 마음의 공백을 채워줄 수 있다고 믿어지는 대상이 신입니다. “다른 신들을 섬기지 말라”는 제1계명은 선민에게만 주어진 계명입니다.

내 마음의 체질은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손으로 만져지는 세상의 대상들을 먼저 흡입하려고 합니다. 먼저 흡입한 세상 것들이 마음에 들어온 상태에서 돈을 벌려고 하고 건강을 챙기려고 하고 외모를 가꾸려고 합니다. 자녀들의 형통한 삶을 바라기도 하고 승진하고 무엇인가를 가지려고도 합니다. 그렇게 되면 기쁠 것이라고 여겨지는 모든 생각들이 들 때마다 십자가에서 죽어서 그 길로 진행하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그 길로 진행하면 선민 됨이 말살되기 때문입니다. 그것들 가운데서 선택의 대상이 되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내가 좋아할 것이 가득한 이 세상에 대해서는 십자가에서 죽는 것이 부림절의 의미입니다.

선민 됨의 승리의 날입니다. 날마다 선민 됨이 온전히 갖추어지는 승리의 날을 살면 이 세상의 삶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일이 될 것입니다. 내가 직접 행할 수 없는 것들에는 하나님이 통치하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임하게 하실 것이고, 내 몸이 움직여야만 하는 것들에게는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할 일은 이 세상에서 주어지는 어떠한 과업을 수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십자가 붙잡고 내 마음을 빼앗아가는 많은 대상들 중에 하나의 대상으로 끼워 넣으신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으로 기쁘고 만족하겠다는 선택을 함으로서 부림절의 승리를 만끽해야 할 것입니다. 그럴 때에 나머지 잠들 때까지의 모든 역사는 하나님의 역사가 될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아버지!
십자가 생활화로 날마다 주어지는 부림절을 선민 됨을 말살하는 날이 아니라 선민 됨을 온전히 성취하는 날로 맞이하게 해주시옵소서. 하루 온 종일 하나님의 계획의 성취로만 가득가득 채워지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